

전남도, 지역 기반 이민·외국인정책 '본격화'

올해 1회 추경에 10억원 추가 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 콜센터 통해 생활밀착형 상담 유치·정착 지원...인구감소 대응

전남도가 지역 기반 이민·외국인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나선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에 이민·외국인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10억여 원을 추가 반영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민간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서비스를 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특화형비자사업 운영, 전남지역 사업체-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될 통합콜센터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간 통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사를 채용해 지역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의료, 금융 등 생활밀착형 상담업무

를 한다.

또한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주민·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을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외국인력을 통한 산업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과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마련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비자 전환 대상자 545명에게 1인당 6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외국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사업' 도비 4500만 원과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다큐멘터리 및 공익캠페인', 대면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정 온라인 한글 교육', '전국다문화가족모국문화페스티벌'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 산업수요에 기반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별 외국인 체류자격과 규모 등을 설계해 운

영할 수 있는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이민정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민정책은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고, 실제로 지역 외국인주민 정책 수요가 늘어난 반면 그동안 이민·외국인정책을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전남도의 이민·외국인정책이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고 인구감소 대응차원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전남도-시군-농협 협업 '농촌왕진버스' 달린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왕진버스' 공모에 13개 시군이 선정돼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도-시군-농협의 협력 사업이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진이 찾아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원이다.

검진대상자는 고령농, 외국인계절근로자, 취약계층 등 농촌지역 거주민이다. 사업추진 지역농협에 신청 후 정해진 일정 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작업 질환을 포함해 양·한방, 구강검진, 검안·돋보기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뷰티·미용 등 재능기부도 함께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13개 시군에서 총 40회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별 검진 인원은 여수 200명, 담양 450명, 곡성 800명, 구례 400명, 고흥 1천900명, 장흥 200명, 강진 250명, 해남 2400명, 영암 400명, 함평 400명, 영광 600명, 장성 600명, 완도 400명 등 9000여 명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은 고강도 농작업으로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으나 농촌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렵다"며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농협이 힘을 모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1개 시군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6600명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사회 개최 조길연(충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27일 순천 에코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나주서 개최

전남도는 9월25일 나주축협 가축시장에서 우량한우 개량 촉진과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40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우량한우 선발대회'와 '한우 고급육 품평회'로 나뉘 치러진다.

참가를 바라는 농가는 출품축을 고급육은 7월18일까지, 우량한우는 8월26일까지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우량한우 선발'은 암송아지,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미경산우, 경산우 1·2·3 등 5개 분야 110마리, '한우 고급육 품평회'는 혈통 등록 이상 거세우 32개월령 이하(2022년 2월20일 이후 출생) 1개 분야 44마리가 경쟁하게 된다.

한국축육개량협회 전남광주본부에서 우량한우를,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

지원에서 한우 고급육 품질 평가를 한다.

대회 시상식은 부문별 입상 농가와 우수 시군에 시상금과 상장(전남도지사상, 농협전남본부장상,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분야별 최우수 축으로 선발된 우량 한우는 10월 중순께 열리는 전국대회에 나가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시상금을 3000만원 증액한 6900만원으로 상향해 경진대회의 격을 높이는 한편, 전남지역 우량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 대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우농가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상 분야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우량한우 출품 농가에 마리당 운송비와 참가비도 각각 20만~30만원씩 지원한다.

최동환 기자

세계적 스트리트 댄서들, 6월 광주 총출동

광주시, 스트릿컬처 페스타 개최 1240명 참여... '전국 최대' 규모

'스트릿 무언 파이터2' 우승자 바다와 왁시, 베이비슬릭을 비롯해 헨리 링크(Henry Link), 미스터 위글스(Mr. Wiggle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리트 댄서들이 광주에 총출동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6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젊음과 열정의 신화력 축제인 '2024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를 연다.

국내외 전문 스트리트 댄서 1240명과 댄스팀 40팀이 참여하는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힙합, 왁킹, 락킹, 팝핑, 오피스타일, 퍼포먼스 등 스트리트 댄스 중

합장르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올해 '광주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바다, 왁시 등 세계 정상급 스트리트 댄서들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배틀라인업9'에서 쇼케이스 등 특별한 공연을 펼치며, 심사위원으로도 나서 축제의 품격을 높인다. 또 아티스트리트, 코스믹 디플로, 엠비서스, 마화연 등의 특별 게스트가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전율을 넘치는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는 힙합, 왁킹, 락킹, 팝핑, 오피스타일 등 1대 1 댄스 배틀 형식의 '배틀라인업9'이 열린다.

아울러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는 △스트리트 댄스팀 퍼포먼스 배틀 △K-

POP 댄스 체험 △플리마켓 △광주관광 홍보부스 △인생사진 포토존 등 시민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기간 광주를 방문할 1만여 명의 관광객을 위한 재미있는 여행상품도 마련한다. K-POP스타의거리와 전일빌딩245를 둘러보며 미션을 달성하면 기념품을 제공하고, 축제장 인근의 주요 관광지를 모두 방문하면 상품을 주는 '우리들의 시간은 이어져 있다'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스트릿컬처 페스타는 광주시,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KBS광주방송총국, 광주관광공사, 빛고을댄스스 등이 공동 주최하며 광주은행, 농협, 트리플엑스 등이 후원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로 생물다양성 보호

광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에서 유입됐거나 특정지역에서 자생하는 생물 중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현재 총 37종 1속이 지정돼 있으며 식물은 17종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광주 생물다양성의달' 연계 행사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고

유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오는 10월까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나선다. 광주시는 장륙국 가습지에서, 남구는 대촌천·수춘천, 광산구는 황룡강 일대에서 환삼덩굴·양미역취·가시박 등 교란식물을 집중 제거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폭넓게 분포돼 고유종을 고사시키는 생태계 교란식물 5종, 총 102t을 제거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존에 힘쓰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선정

환경부 공모 선정... 총 11억 확보

광주시가 환경부의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및 민간투자 11억원을 유치,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 18개소에 31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광주시

가 충전기 설치장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지정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한 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별도의 투자 없이 부족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대폭 확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산하 기관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설치장소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 자체 공모를 통해 공동참여 사업자(SK이렉

링크㈜)를 선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해당 장소별 현장실사와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축된 충전시설은 사업자가 5년 간 의무적으로 운영·관리한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 부지 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올해 시비 3억원을 확보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100kW 급속충전시설 15기를 설치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